

1

후두암에 속발한 다발암

고려의대 이비인후과
최종욱 · 정광윤 · 유홍균
국립의료원 이비인후과
김동환* · 정덕희

후두암 환자들은 흡연, 음주 및 자극성 음식 등의 여러가지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주 원인인 흡연 역시 기도의 부위에 자극을 주게 되므로 다발암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후두암은 표지암으로 불리고 있다.

저자들은 최근 10년간 본 교실에서 경험한 후두암 환자 183명중 속발암이 발생하였던 15례(폐암 4례, 상기도 3례, 위암 2례, 대장암 2례, 식도암, 간암, 갑상선암, 자궁경부암 각각 1례)에 대한 임상적 경험과 치료 결과를 분석 검토하였다.

후두암 환자에 대한 속발암의 발생빈도는 8.20%이었으며, 호발 부위는 폐장이고, 속발암이 발견된 후 평균 생존기간은 9.87개월이었으며, 동시기암과 이시기암의 빈도는 큰 차이가 없었다.

2

종격동을 침범한 부갑상선 선종 1례

고려의대 이비인후과
최종욱 · 유홍균
국립의료원 이비인후과
김 동 환*

종격동을 침범한 부갑상선 선종은 드물게 보고되고, 종물이 커질 때까지는 발견하기 어려우며, 주로

전경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갑상선에서 유래한 낭종으로 오인하기 쉽다.

저자들은 3개월간의 애성을 주소로 내원한 44세 남자 환자에서 이학적적 검사상 좌측 상쇄골 삼각에 종물이 촉지되었고, 후두경 검사상 좌측 성대마비가 있었으며,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쌍부 종격동에 거대 종물이 발견되어 상부 종격동 접근법을 적출한 결과, 비교적 드문 부갑상선 선종으로 판명되었기에 요약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3

다발성 경부 전이성 선암

고려의대 이비인후과
이선희* · 정광윤 · 최종욱

경부에 발생한 전이성 선암은 주로 좌측의 쇄골상와임파절에 단발성으로 발생하고 대부분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드물게 다발성으로 경부 전이를 하거나, 양측의 경부 임파절을 침범할 수 있으며, 세침흡인 세포검사에서 편평상피세포암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진단적 접근을 통하여 원발병소 및 전이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저자들은 경부 전이성 선암으로 진단받은 3례를 문헌고찰과 함께 요약 보고하는 바이다.

4

전상종격동 부갑상선 선종 2예

연세의대 외과
박병우 · 박정수

1982년 7월 부터 1992년 6월까지 10년간 경험한